결핵인물열전 6

3천 쌍 주례를 선 결핵의 대부
류 광 현(柳光鉉)

글 ·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 시신은 후학을 위해 연세의대 해부학교실에 기증하고 뼈는 영구히 보존, 후학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머리털은 잘라 혼이라 생각, 엄마 묘 옆에 묻어다오. 장례식은 하지 말아라. 조의금, 조화는 사절하고 빈소를 차리지 말고 연락처를 세워라. 내게 남은 은행예금과 주식 등은 김명선기념재단에 기증해주기 바란다. 삼남매는 앞으로도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며 살기 바란다. 난 네 엄마와 너희와 함께 너무도 행복하게 살았다. -1998년 5월 8일 너희들의 아버지 류광현-

이것은 결핵의 메카 마산에서 결핵계의 대부로 명성이 높았던 류광현의 유언장 내용이다. 스스로 결핵과 싸워 이기고 결핵의사로서 평생 결핵환자를 위해 헌신한 그는 무욕과 무소유의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마감했다.

결핵과의 인연

류광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후인 1919년 4월 1일 평안남도 중화군(中和郡)에서 출생했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워낙 영특했던 소년은 보통학교를 졸업하자 짚신을 신은 채 서울로 와서 제 2 고등보통학교(현 경복고)에 진학했으며 다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1941년 졸업과 함께 서울 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환자를 돌보다가 과로로 결핵이 발병하여 각혈하고 쓰러졌다. 급성 결핵을 앓으며 돌봐 줄 사람 없이 외로운 투병생활을 할 때 그를 극진히 간호하고 격려해준 한 수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그를 병상에서 일으켰고 그것이 결핵의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병래 원장이 결핵 전문이어서 당시 성모병원에는 결핵환자가 많았으며 원효로에 분원을 설치해 결핵환자를 입원시켰다. 류광현은 그곳 환자까지 돌보면서 열심히 일했으며 1944년에는 친구 중매로 강문상(康文相)과 결혼했다. 일제 말

전세는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지고 미군 폭격기가 한반도에도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과로 탓인지 결핵이 재발한 그는 소개 겸 요양차 처가가 있는 원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1945년 초 강원도 평강(平康)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고지결핵요양소에 입원했는데 몇 달 후 해방이 되었으며 병세도 호전되어 다시 원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38선이 쳐지고 소련군이 진주하여 공산주의 세상이 되자 그는 1947년 월남을 단행했다. 그때 소련 경비병에게 붙잡혔지만 의사증을 내보이며 이남에서 약을 구해서 오겠다고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남한에는 유일하게 1946년 문을 연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이 있었는데 그는 곽인성(郭仁星)원장의 주선으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1947년 4월 기차를 타고 생전 처음 마산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산은 인구 4만 명, 택시가 2대 밖에 없는 소도시였다. 곽인성 원장, 이완영(李玩永) 의무과장, 변해원(邊海元) 의무관이 함께 마중을 나왔는데, 38선을 넘어온 그를 따뜻이 맞아 준 그 때의 감격과 고마움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

그때 그 요양원에는 스미스(Roy K. Smith)라는 선교의사 출신의 결핵전문가가 미군정청 자문관으로 와 있었는데 그로부터 최신의 의학정보와 인공기흉술, 인공기복술, 횡경막신경수술 등 새로운 시술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보사부에서는 전국의 대학병원이나 도립병원 등에서 의사 2명씩을 10일간 트레이닝하는 코스를 만들었는데 58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닥터 스미스로부터 엑스선 판독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갔다.

당시 요양원 치료는 대기, 영양, 안정의 3대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의무과장이 된 류광현은 환자에게 엄격히 규율을 지키도록 하면서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환자들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교통부 결핵관리 10개년 계획

1953년 6.25 후 마산교통요양원의 2대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류광현은 50병상의 병동 하나만 있고 2개 병동은 육군병원으로 징발되어 있는 것을 꾸준한 교섭 끝에 되찾아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단층 촬영기 등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200병상 규모의 완전한 요양원으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다.

교통요양원은 교통부 직원과 그 가족을 주 입원 대상으로 했는데 류광현은 발견된 환자를 입원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1954년부터 교통부 직원 결핵관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을 설득하여 이를 실천에 옮겼다.

철도종사자는 특수한 노동조건 하에서 다년간 계속 근무하므로 질병침해의 기

회가 많고 과로로 인해 결핵 발병률이 높았으므로 당시 약 3만 명 가까운 교통부 직원의 결핵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1954년 6월 5일부터 1956년 3월 15일까지 첫 집단검진을 실시했으며 그 후부터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엑스선 기계와 발전기 등 검진장비를 탑재한 검진전동차가 철도 노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근로 현장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검률도 높았고 근무상 지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철도건널목 초소, 터널 초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직원이 있어도 검진 전동차를 세우고 검진을 실시했다.

집단 검진으로 발견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통원치료를 하고 중증환자를 포함한 외과적 요법 대상자에게만 입원치료를 했다. 10년간의 집단검진을 통해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르는 적절한 의학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대단위 직장 결핵관리의 성공적 모델이 되었다.

10년간 체계적인 결핵관리 결과 교통부의 결핵환자는 현저히 감소했다. 그 결과를 학회에도 보고했으며 우수 논문상도 받았다. 아마 그때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보람있고 젊은 열정을 다 바쳐 신명나게 일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가 원장으로 남긴 또 하나의 업적은 내과적 치료 위주의 요양원에 완벽한 외과시설을 갖추고 폐절제수술과 흉곽성형술을 시술한 사실이다. 세브란스 의대의 홍필훈(洪弼勳)교수와 경북의대의 이성행(李聖行) 교수가 교대로 출장와서 수술을 담당했다. 그는 교통요양원장으로서 13년간 근무했는데 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유능한 스탭진으로 어느 대학병원 부럽지 않게 잘 해나갔다.

무욕 무소유의 삶

류광현은 원장 재임중인 1957년부터 58년까지 1년간 미국 뉴욕시립 씨뷰병원에서 결핵을 전공했으며 결핵환자의 폐기능에 관한 연구로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자녀들이 성장하자 그 뒷받침을 위해 1965년 2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마산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했다.

1959년부터 66년까지 결핵협회 이사로서 민간 항결핵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초창기 가족계획협회 경남 지부장과 마산의 라이온스클럽 멤버로서 많은 사회봉사 활동도 했다.

덕망있는 지역유지였을뿐만 아니라 금술 좋은 잉꼬부부로 소문이 나 결혼식 주례 청탁이 줄을 잇기도 했다. 총 3천 쌍이 넘는 결혼 주례를 섰으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고학생이던 자신에게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은사 김명선(金鳴善)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83년에는 김명

선기념재단을 설립하고자 마산의 임야 5만여 평을 기증했다. 그것은 무일푼으로 월남한 그가 처음으로 이룬 재산이었다.

88년 개인의원의 문을 닫고 환자진료에서 손을 뗐지만 98년 3월 7일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원시 용호동(롯데아파트 210-230)에서 10년간 병시중을 했는데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그의 아내 사랑은 극진했다.

1960년경 마산교통요양원 원장시절 직원들과 함께

병원을 그만둔 후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공부와 명상을 한 후 아침상을 차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미국에서 아들 내외가 귀국할 때면 그는 손수 식사를 마련하는 멋쟁이 시아버지기도 했다.

틈틈이 그림도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웃과도 잘 어울리며 정정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다. 임종 전 그는 자신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급히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1999년 2월 14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향년 80세. 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만이 간단히 영결예배를 올리고 시신은 학교에 기증됐으며 그 후에 이웃과 친지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가 남긴 8억 원대의 은행예금과 주식은 김명선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슬하에는 1남2녀를 두었는데 아들 제우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병리학 교수로 있다가 현재 시카고 재향군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강컨설턴트인 장녀 윤희와 차녀 경희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는 보사부, 교통부 장관 표창은 물론 홍조근조훈장과 1997년 복십자대상 공로부문을 수상했는데 즉석에서 상금 전액을 불우한 결핵환자를 위해 기증했다.

그는 '보건세계' 지의 단골집필자였으며 필자가 부탁하여 쓴 1953년 결핵협회 창립총회 참관기는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다.

■정정합니다■
지난호 결핵인물열전 20페이지 열 번째 줄의 내용을 "1961년과 1978년에 대한결핵학회장을 역임하고 1967년부터 2년간 대한결핵협회장을 역임하였다"로, 18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의 '국내안'을 '국대안'으로 정정합니다